

## 不安의 哲學者 『하이텍겔』(7)

-그 現代的 意義와 限界-

朴致祐

自我 自身은 勿論이고 其他 價値의 存在者 及 一般으로 存在 一斑에 限해서 우리가 이것들과 어떠한 關係(理解, 實踐, 認識)를 매글 수 있는 것은 자못 存在의 背後에서 日常은 숨어 잇스나 人間 存在의 根本的 開示性인 不安의 明夜에만 □現되는 저 『無』의 世界에 다 우리 自身을 끄러 너흔 (根據)에 依하여서 眞 可能하다는 意味의 말을 力說하고 잇다. 이 簡單한 敘述만에서도 이미 짐작되려니와 自我와 世界에 關한 把握은 다만 『不安』을 通하여 『無』의 世界에 突入함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는 말과 다름 업는 것이다. 다만 注意 할 바는(첫 재로) 그릇타고 해서 『無』는 엇던 때는 잇고 엇던 때는 업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어데서던지 언제던지(아니 오히려 時空政 意味를 떠나서 有의 世界의 背後에서 自身의 否定 作用을 通하여 有의 世界를 可能케 하는 그러한 範極的인 存在(?)인 것이나 사람들은 日常은 『有』의 世界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 『無』를 보지 못할 따름이라는 點. (둘재로) 不安도 亦是 엇던 때는 잇고 엇던 때는 업는 그러한 한 개의 『性質』이 아니라 『世界內 存在』라는 바로 그것이 本質的으로 具有하는 根源的인 開示力인 것이나 다못 사람들은 普通은 너머 世界만 빠져 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잠자고』잇 쓸 뿐이라는 點. 이 두 가지 點은 特히 留意해 둘 必要가 잇다. 웨 인가하면 根本的 思想에 잇서서는 同一하면서도 이 點 때문에 『하이텍겔』과 『야스펠스』는 區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六. 限界

以上과 가튼 『하이텍겔』의 思想에 對한 批判으로는 □否兩設이 實로 區區하다. 『과울·멘첼』이나 『니코라이·할트만』 가튼 사람은 體系 批判的 立場에서 말하여 『하이텍겔』의 哲學은 結局은 人間 中心主義, 主觀 中心主義의 思想에 不過함으로 必然的으로 相對主義的 誤解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막스미리한·백크』는 『하이텍겔』을 가르쳐 帝國主義時代의 代表的인 哲

學者라고 말하며, 『칼·발마』와 가튼 사람은 『루덴돌프』로부터 모-든 『보르쉐비스트』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公公然한 反基留教的 公子 보담도 『하이텍겔』이야말노 더한 □ 危險한 害虫이라고까지 □說을 퍼붓고 있는가 하면 反對로 危機 神學者 辨證法的 神學者인 『부룬넬』관 가튼 사람은 오히려 『하이텍겔』哲學에 對하여 적지 안흔 共感을 表明하고 있는 것이나 大概는 이 後者의 意見이 正當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一一히 이러한 批判을 探求할 餘裕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할 必要도 업슬 것 같다. 왜 인가하면 이들 諸評言은 『하이텍겔』哲學이 가지는 바 現代的 意義라든가 또한 이와 同時에 이 哲學이 必然的으로 가져야만 할 『限界』에 關해서는 一言의 明示도 俾여줌이 업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왜 인가하면 그들은 언제나 哲學은 哲學이기 前에 무엇보다도 먼저 한 개의 『思想』으로 『이즘』으로서만 問題삼어져야만 되며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데오로기』의 性格에 對한 批判이 앞서야만 된다는 事實에 盲目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체 『하이텍겔』哲學의 現代的 意義란 엇던 것이며 그 限界는 어나 곳에 있는 것인가? 大體한 放言이 許容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가티 말할 수 잇슬 것 같다. 卽 그의 哲學의 現代的 意義는 不安을 通하여 無, 死, 良心 等に 直面함으로 말미암아 人間 存在의 運命的인 有限性을 깊히 覺悟함으로써 現下 人間이 當面하고 있는 危機 打開의 一路를 求하여 보자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點에 잇는 것이라고.